

# 철저한 구제역 예방 방역으로 두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박응규 본회 이사·해태유업연합회장



전국에 계시는 축산농가 여러분! 구제역이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항상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방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번 다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축산농가 여러분이 앞장서야 할 때이며, 우리의 축산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예방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두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구제역이란 단어조차 정말 듣기 싫은 말이다. 파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000년 3월 31일 협회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농림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원들과 구제역 방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파주지역 농가분들한테는 죄송스런 일이었지만 앞으로 더이상 타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기를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이제 어찌된 일인가? 4월 2일 오후 7시경 우리지역인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에서 구제역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연락이 있어 정신없이 쌍학리 목장으로 달려갔다. 제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면서...

이미 그 곳에선 가축위생연구소 검사원 세 명이 나와 혈청 채취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차단을 해 버렸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다. 내 지역에서, 그것도 내 목장에서 3km반경 밖에 안되는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목장주를 위로해 주는 것 뿐이었다.

너무나도 기막힌 일이었다. 목장주는 이제 겨우 목장형태를 갖춰 나가면서 검정우사업을 시작하며 부푼 마음으로 우수한 낙농경영을



구제역 피해 보상회의

해보려 노력하고 있는 중에 구제역이라니... 목장주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비통한 심정은 금할 수 없었다.

4월 4일 구제역으로 판명되면서 모든 젖소는 하루아침에 살처분을 당해야 했고, 모든 부산물 역시 모두 불태워버려야 했다. 하루도 안되는 시간에 이웃의 인심도 변해버렸고 서로간의 왕래도 끊어졌으며 모든 통행 또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전쟁이 따로 없었다. 절로 한숨이 흘러 나왔다.

우리 축산인들이 수입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구제역이란 질병까지 가세를 하다니... 원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높으신 분들이여, 우리 축산인들이 무슨 죄가 있던 말ियो. 시원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 앉을 수가 없었다.

4월 4일 나는 면사무소에서 소

독약을 지원받아 반경 500m 이후 거리에 있는 목장부터 과수원에서 쓰이는 SS기를 가지고 예방 방역에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확대되면 우리지역의 축산은 끝나기 때문이다. 2개 리의 목장 방역을 모두 마치고 나니 오전 11시가 넘어섰다. 너무 힘에 겨웠다. 오후부터는 행정기관에서 나와 방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결 마음이 놓이면서도 좀 더 일찍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와 같이 농가들은 구제역 방역에 온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4월 19일 농림부 기자실에서 축협 중앙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역 보호지역에 예방접종 가속을 정부가 수대하여 살처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던가! 낙농가들은 가뜩이나 살처분이란 말에 아주 예민한 사항으로 말조차 꺼내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진정 축산인을 위한 발언인지 알 수가 없고 분노가 앞섰다.

우리는 즉각 사과문을 요청하며 항의서 및 항의방문할 것을 중앙회에 통보하였으며 중앙회에서는 해명자료를 보내왔고 구제역 관계 대표들은 5월 2일 중앙회를 항의 방문하여 축협중앙회 회장 직무대행 경제상무로부터 살처분 발언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한다는 말을 받아들였다.

전국에 게시는 축산농가 여러분! 구제역이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항상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방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번 다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축산농가 여러분이 앞장서야 할 때이며, 우리의 축산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 축산농가분들은 너무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큼니다. 이제 이러한 고통을 미리미리 예방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두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정부관계자 여러분들도 이번 구제역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인들의 고통을 감안하시어 두번 다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필자연락처 : 0339-356-0073〉